

1.4.3. 청자의 추론과 해석

청자는 화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의미도 추리하고 해석한다. 따라서 화용론은 화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도 청자가 어떻게 추리하고 해석하는지를 연구한다. 예를 들면, “영희는 예쁘기는 한데, ……”라는 말로 끝났으면, 말한 것만을 보고 칭찬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은 것을 추리하여 칭찬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화용론에서는 이렇게 숨겨진 의미까지도 추리하고 해석한다.

1.4.4. 화자와 청자의 거리

화자와 청자는 현실세계에서 경험한 지식을 공유한다.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는 거리가 가깝고, 적은 경험을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는 거리가 멀고,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화자와 청자는 거리가 매우 멀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라 화자는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담화를 조직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본인의 슬픈 가정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화용론은 이와 같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연구한다.

2. 화용론의 연구 대상

화용론의 연구 대상은 직시, 전제와 함의, 대화함축, 화행, 대화 구조, 공손 등이다. 연구 대상은 여기에서 간단히 다루고 이 후에 차차 장을 달리하여 다룰 것이다.

2.1. 직시

직시(deixis)란, 발화 상황과 연결된 언어요소이다. 즉, 화맥에 따라서 지시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화맥 의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1.1. 직시의 종류

직시는 대화와 대화참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칭직시, 대화와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직시, 대화와 공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장소직시, 대화 내에서 언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직시, 대화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직시로 나뉜다.

(1) ㄱ. 인칭직시: 1인칭, 2인칭, 3인칭

ㄴ. 시간직시: 입력시(나 지금 여기에 있다.), 수신시(너 지금 이 메모를 보고 있지?)

ㄷ. 장소직시: 거리(이, 그, 저), 방향(앞, 뒤), 위치(덱)

ㄹ. 담화직시: 조용, 담화직시체계

ㅁ. 사회직시: 경어, 호격

2.1.2. 직시의 표시

직시를 나타내는 어휘는 품사별로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시간부사, 장소부사를 들 수 있다.

(2) ㄱ. 지시관형사: 이, 그, 저

ㄴ.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ㄷ. 인칭대명사: 나, 너, 그, 그녀 등

ㄹ. 시간부사: 아까, 지금, 이따, 어제, 오늘, 내일 등

ㅁ. 장소부사: 여기, 거기, 저기

직시를 나타내는 문법자질은 높임법을 나타내는 것과 호응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3) ㄱ. 높임법: -시-, 께, 상대 높임(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 해요, 해), 께서 등

ㄴ. 호응: 약속화행은 1인칭이 주어이며 ‘-을게’와 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됨, 명령에는 2인칭이 주어이며 ‘-어라’와 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됨, 청유에는 1인칭 복수가 주어이며 ‘-자’와 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됨.

2.2. 전제와 함의

2.2.1. 전제

전제(presupposition)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가 어떠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4) 영이의 남자친구는 고전음악 CD 네 개를 구입했다.

ㄱ. 영이라는 여자가 있다

ㄴ. 영이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

ㄷ. 영이에게는 남자친구가 하나뿐이다.

(4)의 발화에서 화자나 청자는 (4ㄱ, 4ㄴ, 4ㄷ) 같은 전제를 할 수 있다. (4ㄷ)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친구’라고 하면, 한 명뿐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들을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2.2.2. 함의

함의(entailment)는 발화된 문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함의는 발화된 문장으로부터 추리된다.

(5) 영이의 남자친구는 고전 음악 CD 네 개를 구입했다.

ㄱ. 영이의 남자친구는 고전 음악 CD를 한 개를 구입했다.

ㄴ. 영이의 남자친구는 고전 음악 CD를 두 개를 구입했다.

ㄷ. 영이의 남자친구는 고전 음악 CD를 세 개를 구입했다.

(5)의 발화는 (5ㄱ), (5ㄴ), (5ㄷ)을 함의한다. 이러한 함의는 발화된 문장으로부터 추리된다. 함의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도 전달되는 정보이다.

2.3. 대화함축

2.3.1. 대화함축의 정의

대화함축이란 한 발화가 내포하고 있는 상황적 의미들이다. 대화함축을 줄여서 함축이라고 하기도 한다. 전제, 함의, 함축을 일명 숨은 그림 찾기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제와 함의는 주로 논리 철학과 문장 의미론에서 다루어지던 개념으로 한정된 문장에서만 그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반면에 함축은 실제 상황이 바탕이 된 발화에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한다. 즉, 함축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나타난다.

(6) ㄱ. 식사하셨어요?

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ㄷ. (실내에서) 좀 덥지 않니?

ㄹ.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에게) 저 옷 예쁘지 않니?

(6ㄱ)은 식사를 했느냐는 의미 외에 인사말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인사말의 경우가 (6ㄱ)의 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6ㄴ)은 커피 한 잔 하자는 의미 외에 대화하자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꼭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되니 대화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내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대화하자는 의미가 바로 (6ㄴ)의 함축이 된다. (6ㄷ)은 덥다는 의미 외에 창문을 열어달라든지 에어컨을 켜 달라든지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후자의 의미가 (6ㄷ)의 함축이 된다. (6ㄹ)은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에게 발화했을 경우는 저 옷이 예쁘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 외에 저 옷을 갖고 싶으니 저 옷을 사 달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역시 후자의 의미가 (6ㄹ)의 함축이 된다. 이렇듯 함축은 실제 생활에서 흔히 사용된다.

2.3.2. 함축의 구분

함축을 구분하는 데에는 협조의 원리가 기본이 된다. 협력 원칙이란, 대화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그 당시 대화의 목적에 의해 필요한 만큼 하라는 것이다. 협력 원칙은 CP(the cooperative principle)라고도 하는데, 이는 네 가지 하부 원리를 갖고 있다.

(7) 그라이스(1971, 1975)의 협력 원칙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를 하라.

- i.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히,
 - a.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b.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 ii.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 a.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 b.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 iii.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을 지녀라.
- iv.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명료하라. 특히,
 - a. 모호성을 피하라.
 - b. 중의성을 피하라.
 - c. 간결하라.
 - d. 조리 있게 하라.

(7)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져서 완전히 의사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조의 원리는 함축의 해석에도 도움을 준다. 협조의 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함축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대화함축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2.4. 화행

화행(speech act)이란 발화를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고 언어가 가지는 행동의 측면을 부각시켜 이르는 것이다. 수행 동사가 명시된 수행문을 ‘명시적 수행문’이라고 하고, 문장의 유형을 통하여 수행되는 화행을 ‘암시적 수행문’이라 하여 구별한다.

화행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행을 나타내는 특정 문장 형식이 있다.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제안문 등의 문장

형식은 각각 진술, 질문, 명령, 제안 등의 발화 수반력을 지닌다.

둘째, 수행 동사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8) ㄱ. 김영석 씨를 우리 재단의 총무 이사로 임명합니다.

ㄴ. 강의 시간에 늦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ㄷ. 저는 순이를 대표로 보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ㄹ. 무단 침입자는 엄벌에 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8)처럼 말하는 것 자체는 발화행위이지만, 이 발화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화자가 이 말을 함으로써 명령, 진술, 약속을 하게 된다. (8ㄱ)은 임명(명령), (8ㄴ)은 약속(약속), (8ㄷ)은 반대(진술), (8ㄹ)은 경고(약속)의 화행을 나타낸다.

셋째, 간접적으로도 화행이 수행된다.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은 기본적 문장 유형이 기본적 기능과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간접 언어행위는 진술 문장으로 질문이나 명령의 언어 행위를, 질문 문장으로 명령의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9) ㄱ. 바깥 날씨가 꽤 쌀쌀하군.

ㄴ. 나는 너에게 바깥 날씨가 쌀쌀하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ㄷ. 나는 너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요구한다.

(9ㄱ)이 (9ㄴ)의 진술로 사용되면, 직접 언어 행위로 기능하고, (9ㄷ)의 명령으로 사용되면, 간접 언어 행위의 기능을 한다.

2.5. 대화 구조

단위	설 명
화행	분석의 형식적 최소 단위이다. 화행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예) 갑: 철수가 왔어.
순서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끝낼 때까지의 단위이다. 즉, 현재 말하고 있는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말을 넘겨주기 전까지 발화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의 순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예) 갑: 철수가 왔어. 그런데 철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
교환	주도자와 조력자에 의한 상호 작용의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교환은 서로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발화한, 두 개의 순서로 구성된다. 예) 갑: 철수가 왔어. 그런데 철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 을: 무슨 일 있었대?
단위 화제	한 화제(topic)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교환으로 구성되며, 하나 이상의 단위 화제가 모여서 상위 단위 화제를 이룰 수 있다. 예) 갑: 철수가 왔어. 그런데 철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 을: 무슨 일 있었대? 갑: 건다가 전봇대에 부딪쳤대. 을: 그랬구나. 조심하지 않고.....
기능 단계	한 대화를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을 이른다.
대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끝맺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단위를 이른다. 대화에서의 형식적 최대 단위이다.

2.6. 공손

공손이란 상호 작용 속에서 타인의 체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공손은 체면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공손은 지켜야 할 격률이 있다.

2.6.1. 체면

체면(face)이란 공적으로 지켜지는 개인의 자존심을 말한다. 즉, 체면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싶은 공적 자아상이라 할 수 있다.

체면에는 적극적인 체면과 소극적인 체면이 있다.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은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 곧 방해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되기도 하고, 손상받기도 한다.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체면 보호 행위(face saving act)는 청자의 체면을 지켜주는 행위이다.

체면보호행위의 전략으로는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이 있다. 적극적 체면을 향한 체면 보호 행위에는 협동심을 보여주고,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적극적 공손이라 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협동심을 보여주거나 목표와 관심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 공손이다. 소극적 체면을 향한

체면 보호 행위에는 상대방이 가진 시간에 관심을 표현한다거나, 부담을 주거나 방해하였을 때 사과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소극적 공손이라 한다. 다시 말해 남에게 준 방해나 부담에 사과하는 것이 소극적 공손이다.

2.6.2. 공손 격률

리치(Leech 1983)에서는 공손을 대화의 협력원리와 상호보완의 원리로 보아, 공손원리(politeness principle)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하위 격률을 보여준다.

(10) Leech의 공손 격률

- I. 재치 격률(tact maxim)
 - i.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라.
 - ii. 다른 사람의 이익은 최대화하라.
- II.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
 - i.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라
 - ii. 자신의 손해는 최대화하라
- III. 칭찬 격률(approbation maxim)
 - i.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라.
 - ii.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최대화하라.
- IV. 겸양 격률(modest maxim)
 - i.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라.
 - ii. 자신에 대한 비난은 최대화하라.
- V. 동의 격률(agreement maxim)
 - i.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라.
 - ii.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동의는 최대화하라.
- VI. 공감 격률(sympathy maxim)
 - i.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반감은 최소화하라.
 - ii.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감은 최대화하라.

3. 화맥 계산

일련의 발화에서 언어용법에 관한 배경가정을 기반으로 대화참여자 가정에 대한 본질에 관한 고도의 세부적인 추론과 발화가 사용되어지는 목적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언어용법을 다루기 위해 발화와 해석에서 그러한 계산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산들은 대부분이 규칙적이고 비교적 추상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화용론은 특정 언어나 일반 언어 모두에 작용되는 이러한 능력의 기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은 분명히 일반 언어이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1)의 예시는 화용론이 관련된 사실들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갑과 을,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간단한 세 문장을 살펴보자. 그리고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에 의해서 주어진 것 이외에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아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사용된 화맥에서 문장들에 의해 어떤 함축이 수반되는지 살펴보자.

(1) ㄱ. 갑: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 지금 바로 다시 여기 올 수 있니?

ㄴ. 을: 글썄요, 저는 오늘 부산에 가야만 합니다.

ㄷ. 갑: 음.... 이번 목요일은 어때?

이러한 대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1)이 쓰인다고 가정할 수 있는 화맥의 본질에 관해 상당히 많은 세부적인 화용론적 추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2)와 같은 사실들을 추론하게 된다.

(2) (1)을 보고 할 수 있는 추론

ㄱ. 이것은 대화의 끝도 시작도 아니다. (그러니까, ... 어때?)

ㄴ. ㉠ 갑은 을에게 말이 끝나면 바로 갑에게 오라고 부탁하고 있다. (여기 올 수 있니?, 미안하지만)

㉡ 을은 그가 응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 갑은 다른 때에라도 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ㄷ. 갑은 부탁을 할 때에

㉠ 갑은 을이 지금 오기를 원해야 한다.

㉡ 갑은 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 갑은 을이 이미 여기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 갑은 을이 허락하든지 아니면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만약 을이 허락한다면 갑은 을이 올 것을 기대할 것이다.

㉤ 갑의 부탁은 을이 올 수 있는 동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ㄹ. ㉠ 갑은 을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 갑과 을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

㉢ 갑, 을 모두 부산에 있지 않다.

㉣ 갑은 을이 전에 자기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ㅁ.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목요일이나 수요일이 아니다(적어도 갑은 그렇게 믿고 있다.)

ㅂ. 갑은 을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갑과 을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의 일부는 분명하지만 의미이론의 합리적인 범주를 바탕으로 할 때 추론은 세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추론은 발화로부터 그들이 함축하는 화맥상의 가정을 연속적으로 산출해내는 우리 능력을 반영한다. 즉,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관련성에 관한 사실들, 그리고 대화에서의 그들의 믿음, 의도와 같은 화맥상의 가정을 산출해낸다.

추론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 즉, 발화의 고정적(conventional)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병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문장들이 심리적인 연상 작용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추론은 체계적이다. 그리고 추론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자에 의해 나타내질 수 있다.

추론이 없으면 대화는 이해될 수 없다. 추론의 대부분은 따라서 그라이스의 비자연적 의미에서 의사소통 내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추론들을 야기시키는 사실 즉, 발화 그 자체의 형태와 배열의 양상까지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발화 양상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추론을 야기시키는 규칙적인 원칙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은 앞으로 차차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각각의 추론을 야기시키는 발화 양상만 알아보기로 하자.

3.1 추론 (2┐) - 이것은 대화의 끝도 시작도 아니다.

우리는 발화 (1┐)이 끝을 맺는 발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발화의 끝이 아니라는 (2┐)을 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갑이 을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이 대화에서 사용되는 규칙적인 마감 형태(좋아, 다음에 봐 등)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할 때에는 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의 대답을 요하게 된다. 반면에 대화는 시작과 끝이 있는 전반적인 구조를 가진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추론을 보증하는 대화구조에 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이 대화의 시작이 아님도 알고 있다(그것은 의사소통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보세요?”와 같은 대화를 시작하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화 (7┐)이 시작되는 불변화사 ‘그러니까’는 현재의 발화를 이전의 발화와 관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2. 추론 (2┐)

3.2.1. 추론 (2┐㉠) - 갑은 을에게 말이 끝나면 바로 갑에게 오라고 부탁하고 있다.

첫 번째 발화의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도된 전부는 아니다. 만약에 을이 “네.”라고 말하고 갑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협력적이다. 어쨌든 의문문 형태도 부탁(명령)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미안하지만’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강화되어진다.

3.2.2. 추론 (2┐㉡) - 을은 그가 응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을의 반응이 어떻게 해서 부탁에 대한 거절로 이해될 수 있는지 알기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의 의미적 내용과 그 기능 사이에 전혀 분명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함축은 상호작용하는 협력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 협력 관계는 만약에 하나의 발화가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면 다음 발화가 관련된 반응이라는 것을 가정하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가정은 전혀 무관한 반응을 접했을 때 관련성에 대한 가정은 전혀 무관한 반응을 접했을 때 관련성에 대한 가정이 보존된다는 추론을 야기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1ㄴ)에 있는 발화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을은 부산에 가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갑과 을이 부산에 멀리 있어서 (서로 이것을 알고 있다) 거기서 여행하는 데 남은 하루가 걸린다면 을은 오늘 몹시 바쁠 것이다. 그래서 을은 그가 갑을 만날 수 없는 간접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추론을 야기시키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글쎄요’는 관련성에 대한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추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와 같이 ‘글쎄요’는 의미적 내용은 없고 단지 용법에 대한 화용론적 기능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2.3. 추론 (2ㄴ㉔) - 갑은 다른 때에라도 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발화 (1ㄴ)이 반복되는 부탁으로 간주되는 추론을 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N은 어때?’는 제안하는 데 국한되어 사용된다. 그래서 갑은 목요일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성에 대한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가 무엇을 한다는 마지막 말은 을이 갑에게 가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갑이 의도하는 것이며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은연중에 다음과 같은 가정 즉, 주제 일관성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두 번째 발화가 똑같은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발화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두 번째 발화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분명한 모순이 없는 한 보증된다. 마지막으로 ‘음’은 ‘수행상의 실수’나 ‘대화상의 망설임’으로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특별한 상호작용기능을 가지며 대화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체계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진다. 여기서 그것은 순번을 유지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3.3. 추론 (2ㄴ) - ㉑ 갑은 을이 지금 오기를 원해야 한다. ㉒ 갑은 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㉓ 갑은 을이 이미 여기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㉔ 갑은 을이 바로 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야 한다. ㉕ 갑은 을이 허락하든지 아니면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만약 을이 허락한다면 갑은 을이 올 것을 기대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발화 (2ㄴ)에 있는 의문문이 간접적으로는 요구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올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갑이 합리적이고 진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2ㄷ㉠~㉡)에서 열거되고 있는 화자 믿음과 소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어떤 필수적인 믿음과 의도 없이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성실성(sincerity) 또는 협력에 대한 일반적 가정에 의해서만이 행위로부터 화자의 믿음과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을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갑이 미리 알고 있다면 그는 기만적이다. 그러나 만약 을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갑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을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갑이 안다면, 갑은 전혀 부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 때는 발화 (7ㄱ)이 농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을이 갈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우론이 될 것이다.

3.4. 추론 (2ㄷ)

3.4.1. 추론 (2ㄷ㉠) - 갑은 을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라는 단어는 갑이 말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장소를 가리킨다. 만약 을이 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을이 그 부탁에 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는 해석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어디 있는지 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갑은 충분히 협조적이거나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3.4.2. 추론 (2ㄷ㉡) - 갑과 을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

갑과 을은 적어도 서로 어느 정도 거기를 두고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오다’라는 단어는 말할 당시 청자의 위치를 향한 동작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전혀 거리가 없으면 철자는 화자가 있는 곳으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갑과 을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

3.4.3. 추론 (2ㄷ㉢) - 갑, 을 모두 부산에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부산에 있지 않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을이 부산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을이 부산에 없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다’는 말하는 시간에 화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짐을 뜻한다. 우리는 갑이 부산에 없음에 대해서도 안다. 왜냐하면 만약 갑이 부산에 있으면 을이 거기에 간다는 주장은 을이 오늘 갑에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시적 단어 ‘오다, 가다’, ‘여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계의 본질에 대한 추리와 더불어 이 모든 추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직시적 상황에 대한 자연스런 해석은 갑과 을이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할 수 있다. 이는 직시에서 다룬다.

3.4.4. 추론 (2ㄷ㉣) - 갑은 을이 전에 자기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라는 단어 때문에 을이 전에 갑의 현재의 장소로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갑은 그것을 믿고 있다).

3.5. 추론 (2口) -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목요일이나 수요일이 아니다.

말을 하던 그날은 수요일이라 목요일이 아니라는 (2口)의 함축 역시 직시(deixis)에 기인된다. 왜냐하면 (1ㄷ)에 있는 ‘목요일’이라는 단어는 화용론적 매개변수를 야기시키는 직시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식어 ‘이번’은 그 주일에 있는 화자의 위치와 관련해서 특정한 목요일을 가리킨다. ‘이번 목요일’은 화자가 말하는 그 주의 목요일을 뜻한다. 그러나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은 화용론적 약정에 의해서 ‘이번 목요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이번 목요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에 있는 대화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6. 추론 (2ㄴ) - 갑은 을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갑과 을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저’와 ‘하십시오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리 조건적 의미론에서는 그러한 의미들이 포착될 수 없다. 을이 갑을 잘못 알고 갑이 윗사람이라고 잘못 가정했다 하여도 (1ㄴ)에 있는 을의 단언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들이 누구로 지칭되느냐에 따라 진리치가 결정된다).

나아가서 직관적인 면에서 ‘저’의 의미는 단언되어지는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그들은 을이 말하는 화맥에 대한 배경 가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의 청자는 화자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것을 고정적으로 함축한다(conventionally implicate)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다른 화용론적 추론이 있다. 그러나 화용론적 추론들은 화용론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한 일반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 참고 문헌

1. 김길영 외(2003), 《한국어 화용론》, 세종출판사.
2. S.C.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익환 외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 학습 평가

1. 화용론에 대한 설명과 관계없는 것은?

- ① 화용론은 직시, 함축, 전제, 대화 행위 그리고 대화 구조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 ② 화용론은 실제 상황에서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 전달을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언어 사용자, 시간, 장소, 앞선 담화와 같은 맥락은 화용론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 ④ 각 언어 공동체에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는 언어사용규칙이 있다.

2. 화용론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직시(deixis)는 화맥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화맥 의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② 그라이스의 협조의 원리에서 질의 격률이란, 대화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라는 것이다.
- ③ 화행이란 발화를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고 언어가 가지는 행동의 측면을 부각시켜 이르는 것이다.
- ④ 단위화제는 한 화제(topic)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교환으로 구성된다.

3. 다음 대화의 화맥을 계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갑: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 지금 바로 다시 여기 올 수 있니?
 을: 글썄요, 저는 오늘 부산에 가야만 합니다.
 갑: 음.... 이번 목요일은 어때?

- ① ‘그러니까’를 보면 대화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미안하지만’을 보면 갑의 화행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부산에 가다’를 보면, 갑과 을 모두 부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이번 목요일’은 오늘이 수요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정답과 해설

1. ③

언어 사용자, 시간, 장소, 앞선 담화와 같은 맥락은 화용론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②

대화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라는 것은 그라이스의 협조의 원리에서 양의 격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당신이 믿기에 그릇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와 ‘당신한테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가 질의 격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①

‘그러니까’를 보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목요일은 어때?’를 보면

대화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